

새해에 몇가지 변화되고 있는 문제들

노영한
(본회 전무이사)

WTO 출범 2년차를 맞는 금년들어 양돈업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축산업계가 넘어야 할 몇가지 문제점들을 맞이하고 있다.

첫째, 축산물을 보는 소비자(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번 고름우유 파동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농축산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을 갖고 애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그동안 UR 협상 등으로 농촌을 살리고 농민을 도와 주어야 한다는 인식은 확산되었지만, 우리 농민들도 소비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품질을 높일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9일 소시모(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와 MBC 2580팀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샘플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분석하여 줄 것을 민원으로 접수한 것 등이 좋은 예이다.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잘못된 것은 매를 대서 시정해 나가자고 나오는 것이다. 적당한 때는 잘못을 고치고 발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만, 고름우유 파동에서 보는 바와 같이 KO펀치를 맞으면 불구가 되거나 재기 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지난 해에 협회가 지역별 양돈인대회와 포스타, 팜프렛 등을 통해 돼지고기 품질 향상 홍보를 강화한 이유도 소비자들의 의식변화 때문이었다.

둘째, 가격 형성의 구조적 변화이다. 우리 업계의 잘된 일, 잘못된 일 등 모든 문제들이 가격으로 표시되게 마련이다.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에 따라 양돈업은 크게 변화한다.

이제는 가격의 진폭이 크게 적어지고 생산비를 유지하는 낮은 가격에 안정되게 유지되어 가고 있다. 출하때 가격이 높으나, 낮으냐에 신경을 쓰기보다 과학적인 경영이 요청되고 있다.

셋째, 국제사료곡물 가격의 폭등이다. 돼지, 닭 등 중소가축은 배합사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고 원료사료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사료값의 변화는 직접 양축농가의 수익과 직결되게 마련이다.

톤당 190\$대의 옥수수로 양돈업을 유지·발전해 나가려면 지금과 같은 사료 공급체계로는 국제경쟁이 불가능하다. 사료 공급체계의 혁명적 개선을 요구받고 있다.

이제 우리 소비자(국민)들은
 지난 번 고름우유 파동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 농축산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랑을 갖고
 애용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지난 1월 “소시모”와
 MBC 2580팀이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의 샘플을
 수거해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유해물질 잔류
 여부를 분석해 줄 것을 민원으로 접수한
 것이 그 좋은 예이다.

넷째, 재정경제원의 축산업을 보는 시각이 양
 축농가와와는 너무 큰 거리가 있는 점이다. 나라
 살림을 총체적으로 관장하는 재정경제원의 시각은
 축산업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
 다.

재정경제원의 물가정책은 요즘 서울 3개 도매시
 장 경락 지육 평균가격 2,100원대에 수입돼지고
 기의 방출량 증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축산업계
 의 숙원인 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 이미 95% 이상 축산농가는 모두 해결되었고,
 세금을 낼 수 있는 규모의 극히 일부 사람만이
 남았다는 시각이다.

다섯째, 농장 주변의 농민들의 의식도 분뇨처
 리 문제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고, 냄새공해 문
 제나 여름철 파리 등 점점 입지를 압박해 오고
 있다.

여섯째, 외부적으로도 냉장육으로 수출을 준비
 하며 유통기한 연장 등을 요구하고, 각종 가공식
 품으로 국제무역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방역위
 생이나 국내의 도축처리 수준 등 내외적으로 어
 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방역위생 문제는 그동안 구제역 등 질병
 으로 수입을 금지했던 지역이 부분적으로 수입이
 개방되려는 움직임까지 있어 우리가 세계 각국의
 동향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금년 한 해에 많은 변화가 올 것이고 이에 맞
 추어 양돈업계도 변신하고 적응해 나가며 발전
 하리라고 믿지만, 변화에, 새로운 질서에 적응이
 얼마나 어려운 가를 생각해야 한다.

모든 양돈 선진국들이 생산자 조직을 통해 단
 결되고 체계화 되지 않고 발전한 나라가 없듯이,
 계열화 체제이거나 조합체제이거나 어떤 형태이
 든 우리 실정에 맞는 새로운 업계 변화가 이루어
 져 이러한 거점 중심으로 단결하여 금년중에 우
 리 업계의 당면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원해 본
 다.

냉철한 두뇌와 양돈업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
 슴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뜨거운 머리, 차
 가운 가슴으로는 문제를 더욱 풀기 어렵게 할 뿐
 이다.